

“수공, 4대강사업 8조원 정부 압력에 떠안아”

■ 국감 이슈

국회는 6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현 정부의 대표적 국정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추진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행차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세종시 수정론,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인접 시·군간 통합은

“정부가 밝힌 연평균 홍수피해액 2조7천억원은 4대강 유역이 아닌 전국의 연평균 홍수피해액”이라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풀려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수행은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로 위법 및 부당하다’는 요지의 공사 내부문건을 공개하면서 “수공이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4대강 사업에서 8조원을 떠안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문제 해결은 물론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려 하는 종합 프로젝트”라며 옹호했다.



진땀나고... 목마르고...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전 국방장관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의 질의를 받던 도중 땀을 닦고 있다. <왼쪽>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6일 정부중 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전 국방장관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의 질의를 받던 도중 땀을 닦고 있다. <왼쪽>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6일 정부중 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시·군 통합 국회서 원칙·기준 정해 추진을”

‘노동3권 제외 발언’ 박기성 원장 사퇴해야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능한 상황에서 행안부가 수석위원의 인센티브를 준다면서 전국을 들쭉거리고 있다”며 “국회 특위에서 통합 원칙과 기준을 담은 큰 틀이 마련된 후 통합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원안 수정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가 국민에 여러 차례 약속한 사항으로, 이것을 번복한다면 국가의 권위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며 “대학·기업도시 건설은 세종시를 완전히 폐기하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한노위=국회 국토해양위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감에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 여부 등을 놓고 살점이 오갔다.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 등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 분석결과 약 130만 명의 식수대란이 우려되고 관련 공단의 가동 중단이 예상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기재·정무위=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감에서는 세무조사 문제에 질의가 집중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세무조사를 통한 권력 남용은 중지되고 징세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나라당 김광립 의원은 “지

속적인 변화를 추구해 국제행정의 투명성을 높여나가 달라”고 주문했다.

정무위의 경제인사회연구원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헌법에서 노동3권을 제외해야 한다’는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발언이 논란거리가 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박 원장의 평소 반(反)노동자적 소신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밖에 지식경제부의 지식경제부 국감에서는 녹색성장사업과 SSM(기업형슈퍼마켓) 관련 대책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수협중앙회 국감에서는 수협의 ‘방만, 부실경영’ 문제가, 외교통상통일위의 통일부 국감에선 이산가족상봉, 북한관광사업 재개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슈로 부각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국감 브리핑

“예술의 전당 경영진 비리 알고도 은폐”

민주 조영택 의원

국회 문화위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갑)은 이날 문화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년 12월 오페라하우스 화재 사건과 북구공사입찰과 관련, 문화부가 지난 2월 예술의 전당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며, 입찰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결과보고를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했다. 또 조 의원은 “이를 통해 문화부는 ‘예술의 전당’ 전·현직 경영진의 불법, 탈법 및 부정비리를 확인하고도, 이를 축소 은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감세정책 전남 3조3천억 재정 감소”

민주 강기정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12년까지 총 30조원의 지방재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초 정부는 10조원이 감소한다



고 전망했다. 그는 또 서울이 감소 폭이 가장 크며 전남은 3조3천79억원, 광주 6천68억원 지방재정이 각각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수협 공급 학교급식 36%가 수입산”

민주 김영록 의원

국회 농식품위 소속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수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가 지난 5년간 학교급식으로 공급한 총공급량 1만5천867톤 중 35.7%인 5천666톤이 수입산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산으로 취급하는 원양산인 397톤을 제외하면 실질 국내산 공급률은 61.8%, 9천804톤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참여정부 간판들 속속 광주 온다

23일부터 ‘노무현 시민학교’ 개설

유시민·문재인 등 강사로

유시민·문재인·한명숙 등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이 속속 광주로 물러온다. 이들은 광주에 ‘노무현 시민학교’를 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와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무등사랑(사)인재육성아카데미는 6일 노 전 대통령의 정신 계승을 위한 제1기 노무현 시민학교를 오는 23일부터 6주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광주 상무지구 CMB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개설한다고 밝혔다.

10월23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10월30일 정연우 전 KBS 사장, 11월6일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11월13일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11월20일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11월2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강사로 나선다. 문의 062-223-7733.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민주 “천정배·최문순 빈자리 크네”

■ 국감 프리즘

국회 국정감사의 막이 오르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천정배 최문순 의원의 공백을 아쉬워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천 의원과 MBC 사장을 지낸 최 의원이 지난 7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대해 반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 거리투쟁에 나서면서 전력이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장세환 의원은 6일 “두 의원은 법조계와 언론계의 오랜 경험으로 새로운 이슈 발굴을 하면서 대어 공세를 이끌었다”며 “국감이 시작되니까 야권의 입장을 주장하는

데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문방위의 한나라당 대 민주당 의석비율이 16 대 8로 열세인 가운데 손발을 맞추던 2명의 ‘공격수’가 빠지면 서 화력 저하를 절감하는 것.

두 의원의 상임위 회의장 자리는 공교롭게도 바로 이웃에 있어 전날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나란히 결석하자 공백이 더 커보였다는 후문이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전날 “두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을 듣는 게 상임위에서 큰 즐거움이었다”며 “위원장이 국회의장께 간곡히 말해서 상임위의 즐거움이 빨리 회복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건의해 달라”고 했다. /연합뉴스

‘리틀 DJ’ 정치재개 신호탄?

한화갑 전 대표 15일 광주 방문

‘리틀 DJ’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는 15일 광주를 방문한다. 광주지역 시의원, 구의회 의장들과 오찬을 위해서다.

이를 두고 지역정계에서는 한 전 대표의 본격적인 ‘정치재개 신호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포스트 DJ’ 경쟁과 당내 역학구조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6일 광주시의회 강박원 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광주지역 시의원, 구의회 의장들과 오찬 약속을 했다. 오찬은 15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모 음식점에서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복당 이후 처



음으로 ‘덧발’을 찾아, 지역 의원들과 민주당의 진로와 개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전 대표의 광주 방문은 지난달 30일 복당 문은 지난달 30일 복당 환영사에서 밝힌 “당의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연장선 상이라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광주 북갑에 무소속 출마했지만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총선 직후 복당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최근 복당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 www.hanbitgosi.co.kr

2010년 신바람 나는 공무원 합격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7·9급 공무원 합격의 힘!

7·9급 종합반 하루9시간 강의

기능직특채 찍어주기 "하루특강"

한빛 최고의 합격시스템

개강 11·2

한빛고시학원

공주 북구행일

234-3234

대학재학생, 직장인들 위한

을야간반

초급부터 야간반 개설

첫개강 > 11월 2일

강의시간 19:00 ~ 22:30

기초부터 심화이론

체계적인 학습단계

합격 논스톱강좌

고시학원의 대표브랜드

한빛고시학원